

● 제267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님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2016. 5. 2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I. 결의안 개요

1. 제안경과

가. 발의자 : 신원철 의원 외 73명

나. 발의일 : 2016. 4. 26.

다. 회부일 : 2016. 4. 2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님을 위한 행진곡’은 1982년부터 우리나라 민주역사와 함께 시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불려온 상징적인 노래로, 광주민주화 운동이 1997년 5월 7일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정부 주관 기념식에서 국민의례, 개회사 등과 함께 기념식 공식 식순에 포함되어 2008년 까지 제창되어 왔음.
- 그러나, 국가보훈처에서 2009년 제29주년 기념식부터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식전행사 또는 합창, 무용 배경음악 등으로 격을 낮추는 등 국가보훈처는 여전히 공식 기념곡 지정에 소극적인 입장만 되풀이하여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음.
- 5·18은 4·19혁명에 이어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굳건하게 뿌리내리게 한 시민운동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았으며, 인류 보편적 가치인 ‘민주·인권·

평화'의 정신을 담고 있는 민주화운동으로 세계가 인정하고 있음.

- '님을 위한 행진곡'이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헌법 제1조가 천명한 민주공화국의 수호 의지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이제는 끝내고,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여 진실로 국민화합을 위하여 나가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결의안의 개요

- 본 결의안은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 깃든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 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해 줄 것을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국회와 국가보훈처 등에 촉구하고자 제안된 것임.

2 5·18 민주화 운동의 공식 기념곡 지정의 타당성

- 5·18 민주화 운동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997년부터 정부 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님을 위한 행진곡’은¹⁾ 5·18 기념식에서 2008년까지 공식 식순에 포함되어 참석자들이 다함께 부르는 형태로 ‘제창’되어 왔음.
- 그러나 2008년 기념행사 직후 ‘정부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일어나 주먹을 쥐고 흔들며 제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일부 보훈·안보 단체의 지적에 따라, 2009년과 2010년은 기념식전 공연의 하나로 합창단이 ‘합창’하였고, 2011년부터는 기념식 공식 식순에는 포함하되 ‘제창’이 아닌 합창단의 ‘합창’의 형식으로 불려지는 등 ‘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과 제창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오고 있음(<표1 참조>).

1) ‘님을 위한 행진곡’은 소설가 황석영씨가 백기완씨의 시 ‘뗏비나리’를 개작해 김종률씨가 곡을 붙인 노래로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사망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과 1979년 겨울 노동 현장에서 일하다 숨진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을 기념하고자 탄생한 노래로 민주화 운동 역사의 상징적인 노래로 불려지고 있음.

[표1] 5·18 행사시 기념노래(님을 위한 행진곡) 사용경과

구 분	기념노래	주관부처
1997-2002	기념식 중 제창	행정자치부
2003-2008	기념식 중 제창	국가보훈처
2009-2010	기념식 전 공연(합창단 합창)	국가보훈처
2011-현재	기념식 중 공연(합창단 합창)	국가보훈처

-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 일부 광역의회를 비롯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2013년부터 매년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제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해 오고 있음.
- 또한 2013년 6월 국회에서도 「님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기념곡 지정 및 제창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주관부처인 국가보훈처는 ‘님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및 제창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창시 또 다른 논란 발생으로 국민 통합에 저해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까지 정부에서 기념곡을 지정한 전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도 합창단의 ‘합창’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음.
- 그러나 지난 1982년부터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와 함께 시민들 사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불러 온 상징적인 측면이 있고, 부당한 권력에 항거하고 국가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18 정신을 기리는 것으로 이미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노래라 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서울시의회가 5·18 민주화운동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그 정신을 계승하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나아가 국민대통합의 차원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 운동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기념식에서 제창할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